

꽃비 흘날리는

봄,

미술관에 단풍이 만리를 달리네



허백련 작 '단풍만리도'

광주시립미술관, 지난해 335점 새롭게 소장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어떤 작품을 새로 소장했을까.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모두 335점을 새롭게 수집했다. 일반 구입 47점, 아트페어 구입 54점, 하정웅 6차 기증작품 224점, 기타 10점 등이다.

광주·전남 미술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작가의 작품,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작품, 청년·중견작가를 포함한 국내외 우수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에 중점을 두고 수집했다는 것이 미술관의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의재 허백련 선생의 '단풍만리도'(丹楓萬里圖). 이 작품은 의재 선생이 남도의 부드러운 풍으로 산천에서 얻은 따뜻한 아늑한 정감을 남종화풍의 인물과 가옥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그린 산수화다. 남도특유의 편안한 산천에서 온 풍경이 독창적인 남종화법으로 잘 녹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한국화로는 소장 변관식 선생의 초기 남종화풍을 알 수 있는 '강변산수도'가 있다. 변관식 선생은 정전 이상범, 심산 노수현, 이당 김은호, 심향 박승무 등과 함께 근대 전통화단 6대가로 꼽히는 인물로 웅혼한 필치로 한국의 산아를 화폭에 담은 산수화가이다. 특히 1926년부터 4년 간 광주에 거주하며 동강 정운 면 등에서 서화를 가르치기도 했다.

한국화가 중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싼 김호석의 작품 '광주 민주화 운동사'도 함께 소장품 목록에 올랐다. 김호석은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노무현' 등을 그린 국내 수목 초상의 대가로 불리고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사'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시민 정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제 2회 광주비엔날레에 출품작이며 당시 미술기자상을 수상했다.

제주에서 태어나 호남 화단에 이름을 떨친 광주를 사랑했던 '빛의 화가' 양인옥의 작품도 함께 미술관에 소장됐다. 1988년 작인 '인물'은 색채의 연금술사로 평가 받았던 양인옥의 색채 감각이 잘 발현된 시기의 작품으로 정확한 대성과 화려한 색채사용이 특징이다.

일반 구입 47점

아트페어 구입 54점

하정웅 기증 224점 등

8월까지 1, 2차 걸쳐

소장품 전시회 열어

지역 청년 작가 중에서는 사진작가 이정록의 작품 '글로벌 사이트-새마을농촌 주택들-한옥'이 눈에 띈다. 모두 9점에 달하는 이 작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제작됐다.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주택의 기형적인 변천사를 보여주는 한국 유형학적 사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2012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인 이 작품이다.

이밖에도 이상범, 허행면, 송수면, 이종원 등 주요 한국화 작품과 손동 등 우리지역 작고 작가의 작품 및 김창열의 작품이 수집됐다. 현실참여계열로는 이근표, 김호석, 여운, 김진수, 안빈, 조정태 등의 작품을 새로 구입했고, 손봉채, 이정록, 김진화, 박소빈, 윤일권, 이매리, 정상섭, 박일구, 정예금 등 지역 청년·중년 작가들의 대표작품들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 하정웅 6차 기증 작품 중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마클한의 초상', 미국 리얼리즘의 대표작가인 벤산의 '츄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광주시립미술관은 하 명예관장의 기증으로 모두 36점에 달하는 이우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해 구입한 신규 소장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신 소장품 2014'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8월23일까지. 이번 전시에서는 신규로 구입한 작품을 1, 2부로 나눠 전시한다. 오는 6월7일까지는 작고·원로작가 및 현실참여계열 중심의 작품을 선보이며, 6월11일~8월23일에는 청년 및 중견작가의 작품들을 공개한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호석 작

'광주 민주화 운동사'



양인옥 작

'인물'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 공청회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오는 16일 오후 3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연다.

정부는 현재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 시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공청회는 다양한 분야의 세부사업을 발굴하기 위

해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노시훈 전남대 문화전 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민인철 광주 발전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이 발표를 한다. 또 나상욱 광주미술협회장,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서순복 조선대 법학과 교수, 윤현석 컬처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062-670-74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문지행' 로마 미술을 보다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주제

19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철학+미술강의, 바이올린 연주

다양한 시민인문학강좌를 열고 있는 인문학 연구공동체 '인문지행'이 다섯 번째 문화예술기획 행사를 진행한다. 19일 오후 5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

여러 차례 '피렌체의 르네상스 예술'을 주제로 인문학적 배경을 소개했던 인문지행은 이번 강좌에서는 로마 시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행사 주제는 '로마의 르네상스와 예술-미켈란젤로, 아담을 창조하고 세상을 심판하다'이다.

3~4차례 진행될 이번 강좌는 단순히 작품을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로마 예술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결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정신적 가치를 남기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강좌는 미켈란젤로가 남긴 최고 걸작품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중심으로



미켈란젤로 작 '최후의 심판'

진행된다.

작품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심옥숙(인문지행 대표, 전남대 강사), 장근영(인문지행 회원, 미술교사)이, 인문학·철학적 배경은 박해웅(인문지행 이사, 전남대 강사)이 진행한다. 또 윤재인 씨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10-2656-92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蓮 순결, 그리고 청순

양원철 개인전

22일까지 자미갤러리

연(蓮)과 꽃잎을 피는 연꽃송이를 보면 순결과 청순함이 느껴진다. 신비롭기까지 하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연을 '흠탕물에 자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한다'라고 말한다.

연과 같은 삶은 지향하며 수십 년간 연이라는 소재를 전작해온 양원철(67) 작가가 '蓮'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광주시 북구 자미갤러리.

양 작가는 지난 35년 동안 연에 매달려왔다. 더러운 물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꽃을 피워내는 모습에 매료된 것이다.

그때가 지난 2월 청년 퇴임한 함평 나산중·고등학교로 직장을 막 옮기고서였다. 그리고 모내가 수련을 담았던 것처럼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연을 화폭에 담았다.

연년 퇴임을 기념해 연 이번 전시에서 양 작가는 그동안과는 다른 작품들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전까지 눈으로 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사실적이면서도 세세하게 묘사해왔다면 이제는 마음으



'연발 인상'

로 연을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연이 품고 있는 그 의미 화폭에 담기 위한 노력이다. 때문에 형태는 더 단순화돼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할 것들을 던지기도 한다.

원광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양 작가는 일본, 스페인, 서울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2-523-09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역,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